현대불교 제410호 www.buddhanews.com 법 석 www.buddhanews.com 서기 2003년 2월 26일 수요일 25

차차석 박사의
## 불교공부 ㄱㄴㄷ

### 무아설과 도덕부정론(4)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존재의 궁극적 실체인 아트만(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아트만이 생물학적인 윤회의 실체라는 점에서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 무아설에 대해 많은 사상가들이 비판과 회의를 제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과 그 과보는 윤회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그런 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인도 일반에서 상식화되어 있는 윤회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영향력, 전달 등의 의미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의미에 가깝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일반 사상계에서는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도덕부정론자들은 업보사상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이었다. 실체가 없이 윤회한다는 것이 쉽게 수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갑이란 인간이 탄생하여 성장하고 죽는 과정에서 불변의 실체가 있어서 갑이란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 사고였다. 그런데 불교적인 견해에 따른다면 갓 태어난 갑과 40세의 갑, 그리고 60세의 갑은 동일한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외형이나 인간적 특징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있을 수 있지만 불변의 실체인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단 그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단순히 갓 태어난 갑과 40세의 갑, 그리고 60세의 갑은 격절된 인간이 아니라 업과 업보의 상속이라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업과 과보의 연속선상 위에서 끊임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세포조직 내지 구성 요소들이 받아 유지하다가 다음의 세포나 구성요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신은 소멸되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온(蘊)이 사라지고 다른 세계의 온이 쌓인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 “업보윤회…실체없다” 부처님 말씀

## 印 사상가들 5논리 내세워 부정

당시의 도덕부정론자들은 이런 점은 간과한 채 아트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만 천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만을 부정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보설을 부정하는 도덕부정론자들과 다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지타 케사캄발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비나 박애의 행위를 해도, 신에게 제사지내고 기도를 올려도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선악업이라는 것도 그 과보란 없다. 금세도 내세도 없으며, 아버지나 어머니도 없다. 올바른 수양이나 노력을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해탈한 성자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세상에는 단지 흙, 물, 불, 바람의 물질적 4원소가 있을 뿐이며, 이 4원소의 집합에 의해 인간과 동물이 태어나고 발육하고 운동 변화하는 것이다”

아지타는 유물론자의 입장에서 물질 이외의 영혼이나 정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동일한 차원에서 종교나 도덕을 인정할 수 없었다. 약간의 시각적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도덕과 업보설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도덕부정론자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대략 다섯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자재화작인설(自在化作因說)이다. 이 세계나 인간의 운명은 모두 범천이나 자재천 등의 최고신이 창조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일체는 신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며,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숙작인설(宿作因說)이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행과 불행의 운명은 모두 우리가 과거세에 행한 선악업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며, 인간의 운명을 전세의 업보로 본다. 따라서 현세에 선악의 행위에 대해 노력하더라도 그것은 내세의 운명을 규정하는 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현세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셋째 결합인설(結合因說)이다. 세계 인생의 모든 것은 흙, 물, 불, 바람 등의 여러 요소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그 결합 상태의 좋고 나쁨에 의해 인간의 길흉화복이 정해진다는 주장이다.

넷째 계급인설(階級因說)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흑, 백, 청, 황, 백, 순백의 여섯 가지 계급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그 계급에 따라 인간의 성격, 지혜, 환경, 가계 등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우연기회인설(偶然機會因說)이다. 무인무연설(無因無緣說)이라고도 한다. 사회, 인생의 운명은 인과업보의 법칙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신의 은총이나 징벌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상 다섯 가지의 사상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이 우연론이든 유신론이든 아니면 전세의 업보이든 모두 자유의지가 전제된 인과율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도덕부정론의 논리적 단초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 “깨어 있으라, 영원의 길 열려있으니…”



지상 백고좌

## 고 송 스 님

(파계사 조실)

올해도 어김없이 해가 바뀌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말이 잘 안나오고 기운도 없습니다. 98년 동안 이 몸뚱이를 끌고 다녔으니 이제 고장이 날 때도 되었지요. 곧 이 몸을 벗어던지고 어디론가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생부지래처(生不知來處)
사부지거처(死不知去處)라.

온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갈 곳을 어찌 알겠는가?

여기 모인 대중여러분은 이 몸 받기 전에 어디에 있었으며 어떻게 이 세상에 온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모인 대중 여러분은 아마도 이 생에 온지 한 50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근원적인 물음에는 대답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몸뚱이는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이어주는 배에 불과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을 이 몸뚱이와 함께 살지만 주인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왔다 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냥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부처님 법은 바로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진실한 참나를 찾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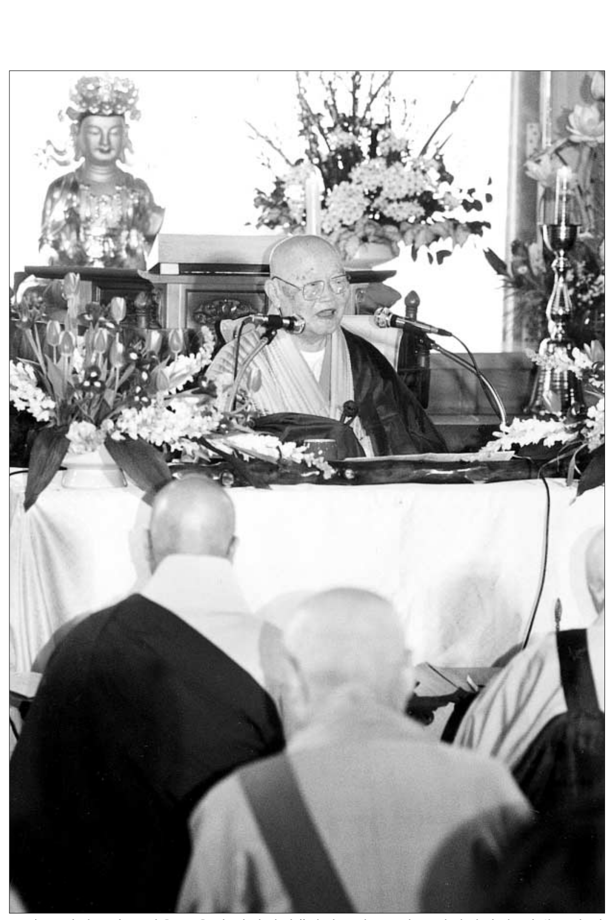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실상(實相)을 바로 볼 줄 알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집착 때문에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실상을 모르면 어떤 것을 봐도 그것의 형상에 마음이 빼앗겨 애착과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이해타산을 떠나 실상을 바로 알면 집착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無常)입니다.

우리 모두 5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땐 다들 어디로 갑니까? 죽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이 몸뚱이와 원수를 집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몸을 보호했건만 이 몸을 버리고 갈 때는 산거북 껍질 버리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냄새나는 이 몸뚱이를 내 보내기 싫어서 별짓 다 하다가 할 수 없이 보냅니다. 잠시 이생에서 몸뚱이 받아 살고 있지만 나를 낳은 부모도 내 것이 아니라고 몸뚱이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왜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를 꿈꾸거나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현재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를 망각하고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며 살고 있다는 말 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 헛된 일입니다.

부귀영화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지나고 나면 한줌 재보다 더 허망한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생과 사가 허망한 것임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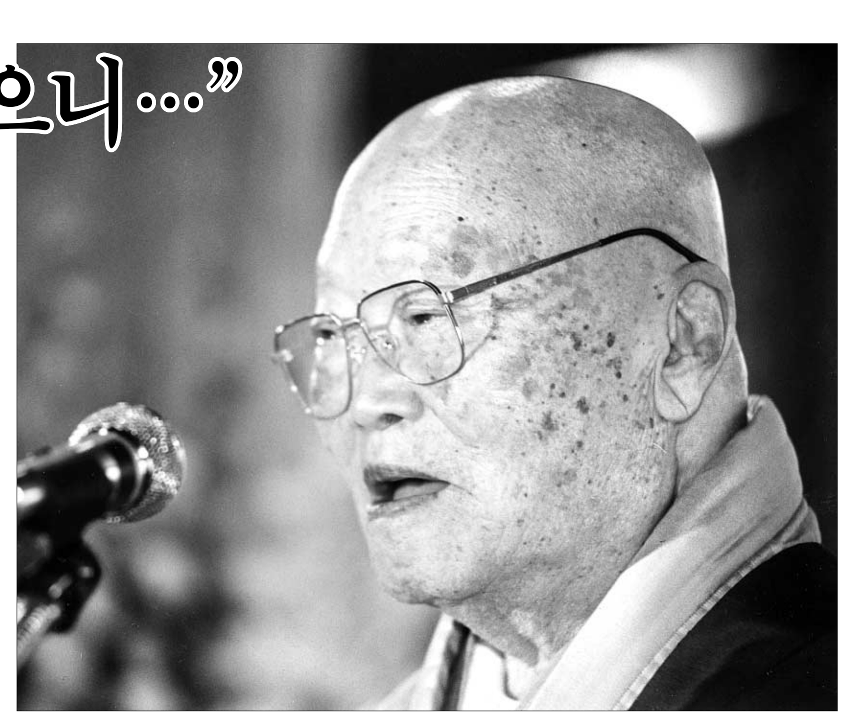

◇98세의 고송스님은 봉은사 법회에서 “살다보니 100년도 잠깐입니다. 이생동안 열심히 수행정진해 청정한 본마음을 찾으세요”라고 법문 하셨다.

## 부처님 법은 ‘참나’ 찾는 길

### 무주상보시로 공덕쌓는 것
### 과거의 악업 씻고
### 생사윤회 고통 끊는 첩경

부처님께서도 왕자로 태어나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왕궁의 동서남북을 통해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생노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은 출가해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부처님의 법을 따라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금생에서 제도 못하면 어느 생에 제도하겠는가 하는 마음자세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억만 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순간’이라는 찰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몸뚱이가 성할 때 열심히 수행 정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100년을 사나 1초를 사나 똑 같은 한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깨어있으면 영원불멸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살아가면서 복 많이 지으십시오. 우리가 지은 복은 영원히 새지 않고 독에 물을 깃는 일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공덕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준다는 생각도 말고, 받는다는 생각도 말며, 이 물건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과거의 악업을 씻고 다음 생에 사람의 몸을 받거나 생사윤회의 고통을 끊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일 한번 한적 없다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잘 하고 못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악업이 더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고통은 이 몸이 받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착한 사람, 못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업 때문입니다.


◇부처님법은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참나를 찾자는 것이니 실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고송스님.

사람이 죽으면 몸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 악업을 쌓은 사람은 뱀이나 독사의 몸이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등 6도 가운데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대중들도 염라대왕이 묻거든 “봉은사 법회에 와서 좋은 법문을 듣고 열심히 수행정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말없는 부처님이 되십시오. 천언만당불여일묵(千言萬當不如一默)’이라 했습니다. 천 번 말해서 만 번이 옳더라도 한 마디도 안한 것만 못하다는 뜻이지요. 부처님도 열반에 드실 때 “나는 한마디도 한적 없다, 열심히 수행정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말 보다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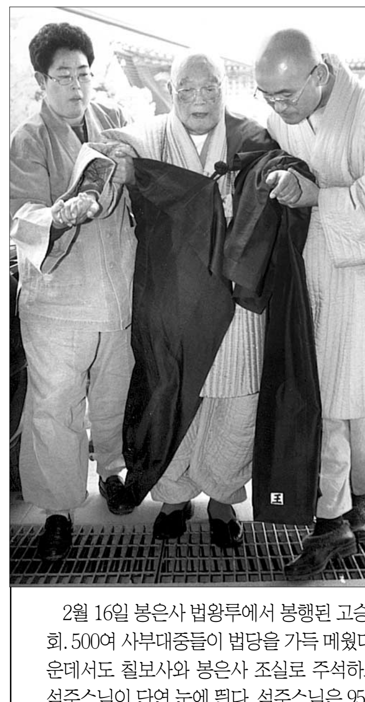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것도 아니요 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언뜻 듣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생불멸의 도리는 저 시내 가에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막 지껄이던 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늙지 않고 맛도 똑 같습니다. 사람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본래 진면목은 청정자성입니다. 중생 모두가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일을 행하고 거짓말을 해서 마음에 때가 끼게 되었을 뿐입니다. 중생들은 무지해서 이 같은 청정자성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저 삼천대천세계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변하지 않듯이 인간의 마음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배를 젓는 사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배를 젓는다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 또한 마음을 쓰는 이 주인공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살아보니 100년도 잠깐입니다. 여러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복 많이 짓길 바랍니다.

정리=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법회 동참자가 본 고송 스님

### 만공·한암스님에 수학…현대불교사 증인
### “모습 자체가 법문, 뵙는 것만으로도 공덕”



2월 16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된 고승초청법회. 500여 사부대중들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그 가운데서도 칠보사와 봉은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는 석주스님이 단연 눈에 띈다. 석주스님은 9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법회 내내 꼿꼿한 모습으로, 일반재가 불자들과 함께 고송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석주스님의 말씀.

“내가 출가하려고 입산해 보니 고송스님은 벌써 선방을 드나드는 수좌였어. 그때부터 일생을 선원에만 다니며 선(禪)만 하셨지. 당대의 고승이라고 칭송받는 만공 · 한암 스님 밑에서 수학했으니 지금은 조계종 최고의 수행자라 해도 손색이 없지.”

고송스님은 1906년 생으로 1920년 팔공산 파계사에서 상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23년 용성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은 이후 1930년부터 무려 15년 동안 금강산 마하연, 유점사, 신계사를 거쳐 묘향산 보현사에서 당대 최고의 선승들과 함께 수행하신 한국 근현대불교사의 산 증인이다.

특히 망월사 결사 때 장판 한 장에 두 명씩 앉고, 아침 죽과 점심만 먹고 오로지 수행정진에만 몰두했고 한번도 종단의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종단의 어떤 분란에도 휘말리지 않은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지관스님은 2월 17일 봉은사 고승초청법회의 법사로 참석해 “어제 법문하신 고송스님은 굳이 법문을 하지 않아도 얼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법문”이라며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을 직접 보는 것만 해도 무한한 공덕이 있다”고 칭송했다.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은 98세의 연세에도 저렇게 정정하게 법문하신 스님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울 사당동에 거주하는 유 정심행(52) 보살은 “오늘 스님을 처음 뵈었는데 노구를 이끌고 법문하시는 모습이 마치 부처님처럼 보인다”며 “앞으로도 건강하시어 대중들을 위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분당에 산다는 강 보리심(33)보살도 “보통 70세만 넘어도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스님은 아직도 건강하시고 80이 안되어 보인다”며 “수행력이 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 우리 같은 젊은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보살은 “죽기 전에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파계사 내원에 들러 스님의 법문을 다시한번 듣고 싶다”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깨쳐야 한다는 스님의 법문은 죽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말끔히 없애 주는 것 같아 기쁘다”며 연신 웃음을 내 보였다. 또한 전북 장계 성관사 월성스님의 유발 상좌라고 소개한 나기태(44)씨는 “은사스님이 꼭 고송스님의 법문을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법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불생불멸한 진리를 물에 비유해 청정자성이 본래 인간의 진면목이라는 법문이 너무 가슴에 와 닿는다”고 말했다.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이신 고송스님은 해방이후 오대산 상원사를 비롯해 여러 수도처에서 오로지 수행이라는 한 길을 걸으셨다.

남전스님의
## 스님이야기

원타스님

포교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관계를 맺는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현장이 도심의 포교당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포교당이야말로 공부하는 수행자, 수행하는 스님들의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불교의 잘못된 선입견 중 하나가 산중의 수행은 경이의 대상으로, 도심의 포교는 무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풍토다.

누가 뭐래도 불교는 믿음의 종교라기 보다는 수행의 종교인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수행의 의미이다. 수행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른생활 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수행은 장소의 문제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이며 삶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수행자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여기엔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림 · 문병성

‘여법(如法)’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불자들 중에는 ‘어느 절 스님은 참 잘 생겼다’ ‘스님의 목소리가 참 좋다’ ‘우리 스님 멋있다’라는 말씀들을 가끔 한다.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 ‘스님, 참 여법하십니다’라고 말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한다. 부처님의 모습, 진리의 모습과 같다는 말보다 더 훌륭하고 멋있는 말이 있을까? 수행자의 모습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 마음속에는 참으로 여법하신 스님이 한 분 자리잡고 계신다. 원타스님이다. 스님과 나는 96년에 이웃한 포교당의 주지로 인연을 맺었다. 그때 스님께서는 도봉산 천축사의 주지스님이었고 도심 포교의 필요 때문에 인근 창동역 근처에 불교문화교육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어느 날인가 스님께서 내가 있는 정혜사로 불쑥 찾아 오셨다. 포교당을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때다. 낯선(?) 스님의 방문이 반가울 리 없어 조금은 퉁명스럽게 대했지만, 스님은 환한 미소로 이웃에 살면서 서로 잘 지내자며 인사차 오셨단다. 경우를 따지면 내가 먼저 인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개의치 않았다. 살고 있던 동네의 지리와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던 내게, 스님의 위로와 격려는 큰 힘이 되었다. 스님은 많은 곳을 안내했고 여러 스님들과 사람들을 소개했다. 특히 스님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더라도 흐트러지지 않는 행동과 그들을 위하는 말씀으로 수행자로서 바른 모습을 보여 주셨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나 역시 스님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한번은 사암연합회의 일로 인해 스님과 관내의 여러 사찰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연합회의 일은 재정적인 도움과 행사 참여의 일을 부탁하기 위함인데 개별 사찰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환영보다는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도 스님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일을 잘도 해내신다. 또 사암연합회엔 소속을 알 수 없는 무속인들도 다수 있는데,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더니 스님은 그들도 모두 부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이상 잘 대해 주자며 여느 스님들과 똑같이 존대하신다. 그렇게 옆에서 지켜본 스님의 모습은

### 포교당 개원때 위로 · 격려 큰힘
### 항상 바른 모습…소중한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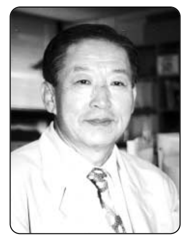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스님이 문중의 일로 부산으로 가실 때까지 몇 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중에서도 스님이 일상의 삶속에서 보여주신 평범하고 바른 모습은, 수행자의 삶이란 자기가 처해지는 현실에서 얼마나 그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준 소중한 가르침이었다.

보현보살의 말씀 중에 ‘여설수행공양(如說修行供養)’이란 가르침이 있다. 배운대로, 말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언행의 일치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다. 불교의 진리가 훌륭하다는 것에 이견을 다는 불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비춰지는 불교의 모습은 기대이하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 속에만 넣고 다니는 것은 흙 속에 보물을 묻어놓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진리와 수행은 일상에서 실천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오늘도 많은 일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포교당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자리매김할 것인지 원타스님을 생각하며 되새겨 본다. 그래서 여법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해 볼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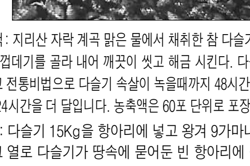
■서울 창동 정혜사 주지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과정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오후 3시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박사
※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02) 747-1567/02) 737-1567
韓國說法硏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단한번에 가슴이 뚫리고 단전이 열리는 신비로운!
호흡법 수행 이야기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로 호흡에 맞춰절하는 법에 이어 처음 공개하는 저절로 단전호흡이 되는 동작으로 배우는 자동단전호흡비법 공개 수련회
◈참선, 염불, 독경, 위빠사나 수행시 호흡법, 자세법을 무시하는 수행자
◈화병, 상기병으로 머리무겁고, 눈충혈, 침이 마르고, 혓바늘서고, 입안이 헐고, 입술부릇트고, 머리속 염증, 목이 아프고, 얼굴이 붉고, 열이나며, 항상피곤하여 눕길 좋아하는 수행자
◈명치끝이 뻐근하고 속이 답답하며 배꼽위아래 단전부분이 딱딱하고 맥이 펄떡펄떡 뛰는 수행자
◈숨을 거꾸로 쉬어 역호흡(염불, 독경, 등산, 대화할때 들숨시 어깨와 가슴이 올라가고 배가 들어감)이 되어 울을때, 놀랐을때처럼 호흡하는 슬픔과 두려움이 많은 수행자
◈배꼽위 위배가 나오고 옆구리 살이 많고 아랫배가 냉하고 손, 발, 무릎이 차가운 단전이 막힌 수행자
◈손가락, 엄지발가락 마디 부분이 까맣고 기미가 있고 가슴, 배, 등, 허리에 검은 반점, 여드름, 닭살이 있는 수행자
◈불면증(3일), 우울증(30일), 악몽, 노이로제, 당뇨, 변비(5분), 비만, 소화불량(3분), 고혈압 환자가 의식적으로 숨을 멈추는 단전호흡을 하면 좋지않고 도인법과 자동단전호흡법을 하면 빠른 시일내에 극복됨을 체험할 수 있다.
◈무의식중에 들숨시 저절로 단전호흡이 되고 날숨시 긴호흡이 되는 절, 염불, 독경, 자동단전호흡법이 건강법으로 확실하며 살을 빼는 다이어트로 가장 수승함을 보여드립니다.
◈절할때 흡흡호, 호흡법은 10분이내에 누구나 100% 수승화강 두한족열이 되는 완벽함을 그동안 수련을 배운 2만여명의 불자들이 절할때 마다 체험합니다.
((숨이 차고 헐떡대고, 맥박이 빠르게 뛰며 빠른속도로 경망스럽게 하는 절은 수행이 아닌 못된 짓입니다.))
※ 수련장소 : 청호불교 문화원 7층 대법당
(서울 강남 청담동 늘봄예식장 시네하우스 뒤 50M)
※ 수련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 ~ 3시
※ 수련문의 : 소리산 참선캠프 법왕정사 청견스님
※ 전 화 : 031)771-7745, 011-9088-9449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2003학년도
제5기 신입생모집 및 영산범패 교육
■ 모집인원 : 스님 30명, 일반불자 30명(선착순)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본의식해설
· 안채비 : 각종 불공의식, 49재, 천도재, 신중작법,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걸채비 : 바라춤,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사다라니, 지옥게
■ 과 정 : 2년(4학기), 1년 - 기초과정(목탁, 요령, 불공, 예불, 사물다루는 법) 2학기
■ 수 강 료 : 1학기 6개월 60만원(비디오 교재 별도) ※ 비디오, 테이프, 교재는 학교에 비치
■ 입 학 식 : 2003년 3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 통신생 출석 교육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 일요일 12시까지
■ 전 화 : 062)362-8604 / 011)624-8604 / 011)614-8604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4 (우 502-242)
■ 과 정 :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전수자)
■ 계좌번호 : 농 협 641010-52-005559 (예금주 : 이복임)
광주은행 122-121-403070 (예금주 : 이복임)
※ 스님, 성직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 전화문의 가능
※ 불교 예술에 소질이 있으신 분은 후계자 선정, 학비 면제
※ 제8회 범패교육 양력 4월 10일 ~ 4월 13일까지 접수 바람.
※ 제9회 영산범패교육 양력 6월 15일 ~ 18일까지 접수바람
호 남 불 교 전 통 의 식 대 학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 실버 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숙실평형 : 9.5평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 | 구 분 | 입주보증금 | 월생활유지비 | 비 고 |
|---|---|---|---|---|
|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 1실 1인 | 50,000,000 | 500,000 | |
| | 1실 2인 | 50,000,000 | 900,000 | 1인 25,000,000 |
| 평생입주 | 1실 1인 | 50,000,000 | 46,000,000 | 96,000,000 |
| | 1실 2인 | 50,000,000 | 70,000,000 | 120,000,000 |
| 입주금 헌납입주 | 1실 1인 | 70,000,000 | 없음 | |
| | 1실 2인 | 100,000,000 | 없음 | |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퇴마승 해원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